

투데이 칼럼

스피치는 생각을 지배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이 담긴 향수요 열매다' 라는 말을 생각한다. 향수와 알찬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는 '좋은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인간관계에서 스피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신언서판'과 같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도 스피치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스피치(말)이다. 사람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스피치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스피치이다.

스피치는 부정적 긍정으로,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절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말대로 되는 인생'은 맞는 말이다.

부정적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은 얼마다 행운이 함께한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일마다 신의 은총이 함께 한다.'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위력을 주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부정적인 스피치를 너무 많이 사용해 왔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애용했다. 이제는 긍정적이고 행복을 만드는 스피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향수와 알찬 열매를 맺어 보자.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야. 아이 신난다. 난 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라는 스피치로 밝고 명랑한 가정, 우리사회를 만들어 보자.

대립과 원수의 개념을 버리고 다 음과 같이 휴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되자.

첫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 자.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람이 따르고

정을 준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둘째, 남의 스피치를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사람은 자기 스피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서 포근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대화를 귀로 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생각은 어떤가'를 물어보면 효과적이다.

셋째, 짧게 말하라.

서론과 결론이 간결해야 한다. 우리는 속도의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바쁘고 자기 시간을 원한다. 예전의 1시간이 지금 30초의 가치인 사회가 되었다.

넷째, 남을 칭찬하는 생활을 하라.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의 '문자오설'도 우리에게 가르치

고 있다.

말이 운명을 바꾼다. 미국의 소아 신경외과 '벤카슨'은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유명한 의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비참했다. 불량 흑인 소년인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다섯째, 밝은 미소로 생활하라.

웃음이 담긴 표정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성공을 이끄는 요령 중 하나가 3초 먼저 인사하고 미소짓기이다.

밝고 원기 있고, 시원스럽게 인사하여 보자. 서양 사람들이 동양 3국(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도 우리를 보기만 해도 알아본다고 한다. 웃음이 적은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미소는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동료 직원에게도 관심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여섯째,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인생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할 때 더 크게 얻어진다.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을 때 얻는 보상이다. '백해무익', '무해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자.

사설

청년은 왜 지역을 떠날까

최근 울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 번 즐기 시작한 인구는 조선업 호황이 돌아왔는데도 계속 출가만 한다. 정점 대비 7만 명이 줄었다. 특히 15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가 문제다.

울산을 떠나는 청년의 수가 2015년 순유출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누적 4만 8천 명이 넘었다. 전체 인구 감소의 약 70%가 청년이다. 미래는 더 암울하다. 울산의 인구는 2040년 95만 명, 광역시 타이틀은 반납할 처지다.

특히 현대차와 중공업의 생산 정규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공업은 10년 동안 1만 명 넘게 줄었다. 현대차는 내년까지 5년 간, 8천 명이상이 퇴직하지만 신규 채용은 별로 없

다. 로봇들이 용접하는 부분은 거의 95% 이상이 자동화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는 청년퇴직자들이 다 나가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전국의 생산 정규직이 한 해 2천 명이 상씩 나가고 있다.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조선소는 가능하면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안 쓰는 추세다.

저임금에 비정규직이라 구인난이 심해지자 회사는 해외 이주노동자로 눈을 돌린다. 생산 정규직이 사라지는 사이, 연구 개발 능력은 울산을 떠났다. 현대차의 핵심 경쟁력은 수도권에 있는 남양연구소에 있다.

이제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야드를 실제로 디지털 도면 안에 3D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울산으로의 부가가치 이전은 거의 없다.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우가 나쁜 일자리를만 존속하게 될 것이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7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일 경기도 가평군 H천추천보수련원에서 열렸다.

가정연합은 1954년 5월 창립됐다.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종교의 목표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통찰하고 세계평화 실현에 역점을 뒀다.

한국에서 태어난 가정연합은 '중주국'의 위상을 지켜왔다. 실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올해에도 유럽과 남미, 중미 지역에서부터 미국·캐나다 등 북미, 일본·대만 등 아시아까지 해외 신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현재 선교국은 200여 곳이 넘는다. 국제합동 축복결혼식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 가정연합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만나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미·소 냉전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던 시기에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는 등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990년에는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갖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이끌었다.

1991년에는 국내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남북통일을 위한 길을 열었다. 가정연합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종단 종교지도자와 국제지도자 등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서밋, 싱크탱크 포럼 등을 하고 있다.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잇는 피스로드 행사도 진행한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통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편종교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거리에서 이드 알 아드하 기도하는 인니 무슬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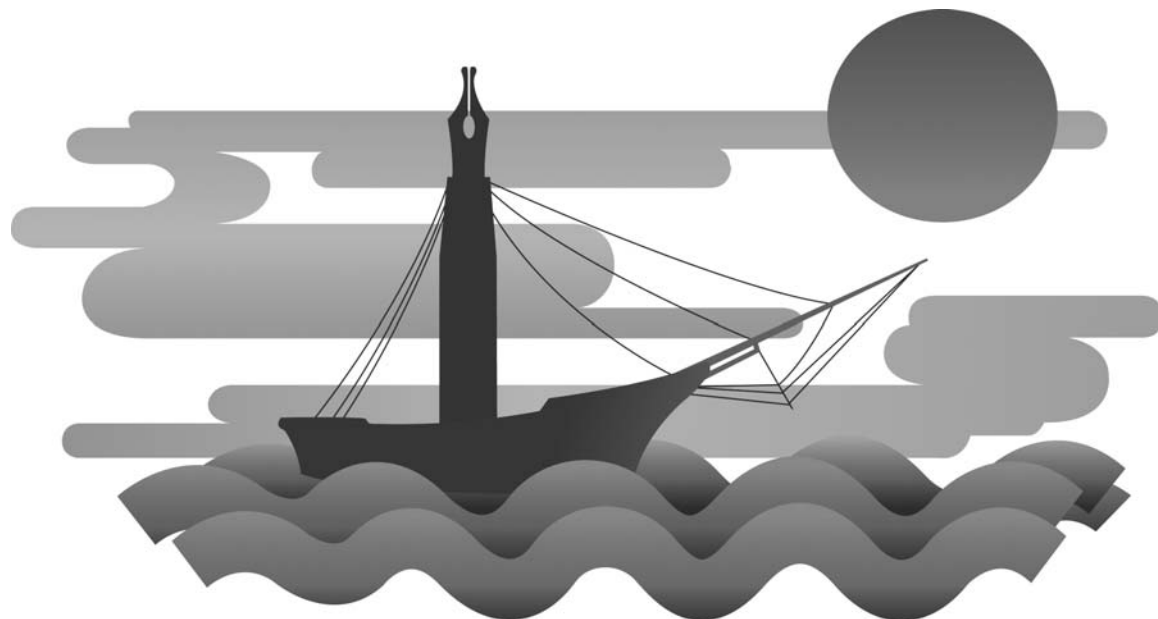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17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거리에서 무슬림들이 이드 알 아드하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 요가의 날' 앞두고 요가하는 사람들



16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공원에서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인도 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이 요가하고 있다. 오는 21일은 세계 요가의 날로 2014년 12월 국제연합이 제정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